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권 복 순

(대구가톨릭대학교)

차 보 현

(영진전문대학)

[요 약]

본 연구는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예천군과 봉화군을 임의표집하였으며, 샘플의 크기는 84명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시안가정주부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현재 경제적 수준은 매우 열악하며, 둘째, 문화적 정체성은 한국문화 정체성이(평균 3.52/5점(± 0.598)) 모국문화 정체성(평균 3.27/5점(± 0.61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수준이고, 결혼만족도(평균 3.60/5점(± 0.630)) 역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국문화 정체성은 연령, 국적, 모국의 직업, 종교, 자녀수, 결혼기간, 결혼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문화 정체성은 이들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넷째, 과반수 이상이 의사소통능력수준이 낮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한국문화 정체성이 더 높았다. 다섯째,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문화 정체성이었으며, 다음은 년평균 소득, 학력, 모국문화 정체성 순이었다. 한국문화 정체성과 년평균 소득은 높을수록, 모국문화 정체성과 학력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코시안가정주부,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 결혼만족도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부터 증가속도가 늘면서 2004년에는 35,447건으로 1990년(4,710건)에 비해 7.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25,594건으로 전년(19,214건)보다

33.2%(6,380건) 늘어났으며, 1990년 619건에 비해 41배 정도 증가했다(통계청, 2005). 이러한 통계는 법적 혼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면 국제결혼 실제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남성과 아시아계 여성간의 결혼으로 형성되는 코시안가정 주부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코시안가정주부들은 언어적 미숙함에 따른 의사소통 장애와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한국문화적응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근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화시대는 지구촌내 문화권간의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외국의 현지 문화에 이방인으로 편입되면 문화충격(culture shock)을 겪는 것과 같이(Oberg, 1960)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코시안가정주부 역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겪으며 문화충격 속에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코시안가정주부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정과 이웃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사례가 많다(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코시안가정주부들의 한국문화적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는 불충분한 언어와 의사소통능력으로 진통제 ‘펜잘’을 ‘벤잘’로 착각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성장단계별 용량을 읽지 못해 신생아 용량으로 계속 먹이다가 아이가 발육부진상태에 처한 심각한 사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5)는 언어소통 어려움의 피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기독교방송(CBS) 광주방송국(2002)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의 국제결혼 여성 100명을 방문 상담한 결과에 따르면 30%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폭력의 주된 사유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였다. 언어는 문화적, 환경적 산물로서(이점숙, 1997) 이와 같은 코시안가정주부들의 언어적 미숙함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문화적응의 실패는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고(송성자, 1974; 박종삼, 1983; 이규삼, 1999; 양철호 외 2003; 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Berry, 1976; Ataca and Berry, 2002; Menjivar and Salcido, 2002), 가정해체(보건복지부, 2005)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근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인구 늘리기 방편으로 한국 농촌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을 ‘농촌총각 짝 지워 주기’라는 정책적 목적(강유진, 1999)으로 국제결혼 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에만 관심을 둘 뿐 코시안가정주부들에게 중요한 한국화(韓國化)에는 배려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매일신문, 2005.2.23).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갈등과 부적응이 심각한데(윤형숙, 2004), 그것은 도시지역보다 유교문화가 팽배해 있으며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농촌지역 거주 코시안가정주부들의 한국문화적응이 더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로, 피부색과 생김새가 비슷하고 동일문화권인 중국동포는 주로 도시에 살고 있는 반면에 날로 증가하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보건복지부, 2005)되어 있어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적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외국인 주부 1,544명 가운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는 1,292명(83.7%)으로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4개국이 93.6%를 차지했다(경상북도, 2005).

국제결혼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기계적 언어통달에 의해서만 불가능하고 문화와 언어라는 체계적 접근이 절대로 필요하다(박중삼, 1983). 전문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응 수준과 요인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양철호 외, 2003). 또한 이들의 적응 문제는 가족복지, 농촌복지의 측면에서(강유진, 1999), 더 나아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학문분야의 여러 학자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연구대상자 및 가족들의 정보노출 거부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송성자, 1974; 박중삼, 1983; 성지혜, 1996; 강유진, 1999; 이규삼, 1999; 안현정, 2003; 표현영, 2004)에서 문화적응 요인이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국가나 특정 종교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고, 문화적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시안가정주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다음 첫째, 문화적 정체성과 결혼만족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결혼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코시안가정주부의 개념과 국제결혼 동기

우리나라 국민 중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로는 한국여성과 미국계 남성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인 아메라시안(Amerasian),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라이다이한(Lai Daihan), 그리고 한국남성과 동남아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코시안(Kosian)이 있다(필벽재단, 2005). 코시안이란 Korean과 Asian의 합성어로서 처음에는 이들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를 일컫는데 사용되다가 차차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은 이들 가정 전체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동아일보, 2002.7.15; 조선일보, 2003.5.4; 매일신문, 2005.2.23), 코시안가정주부란 이들 가정의 주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코시안가정주부 증가 배경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통일교가 주축이 되어 주로 한국남성과 일본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통일교 교리차원에서 성사시켜 왔으며, 1990년대는 국제화

의 영향으로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1992년 한·중 국교수교 이후 과거 동일민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들 간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내국인들의 지속적인 3D직종 회피에 따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남녀의 성비 불균형, 여성의 사회참여 및 미혼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코시안가정주부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안현정, 2003; 보건복지부, 2005).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 및 정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보건복지부, 2005)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동기는 코시안가정주부의 입장과 한국남성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코시안가정주부의 동기는 크게 신분상승 등의 경제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코시안가정주부들의 이주를 경제적 동기로 보는 것은 자신의 나라보다 선진국이며 잘사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고, 가난한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는데(송성자, 1974; Hofsted, 1996; Imamura, 1998; 강인순, 2005; 보건복지부, 2005), 신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국조선족 여성과 동남아의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 동기는 '국경 없는 세계'와 '원수와 맺고 원수와 결혼하는 사랑'을 표방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주선에 의한 결혼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주로 국제합동 결혼식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안현정, 2003; 윤형숙, 2004).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동기는 사회전체의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현상으로 인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한 실정이다. 성비 불균형에 따른 결혼시장의 교란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구할 때 연령 차이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재혼자 또는 그 보다 결혼 횟수가 많은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내부 적응과정을 거치더라도, 결혼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외부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할 수밖에 없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교란현상의 결과로 인해 결국 국내의 한국남성들은 한국여성들과 결혼하지 못하고 "외부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게 되며, 현재 그 대상은 주로 동남아의 저소득 국가 여성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과 동시에 인간의 생물학적 동기인 성적욕구의 해결과 자녀의 출산 및 가문의 유지 등도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2) 의사소통능력 및 문화적 정체성과 결혼만족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이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 및 행동(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0), 또는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규삼, 1999). 맥과이어와 맥더못(McGuire and McDermott, 1987)에 의하면 의사소통능력은 코시안가정주부들의 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했다. 외국인들의 교육수준과 한국에서의 소득수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Samovar and Richard, 1991) 특히,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들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와 규범을 습득하고 한국인들과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또한 코시안가정주부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한국인과 대화할 때에 좀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화제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 수단(Ting-Toomey and Korzeny, 1991)으로, 문화응답이 잘된 상태의 외국인과 그렇지 못한 외국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현지 언어구사능력에서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Berry, Kim and Boski, 1987)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부부관계는 쌍방간의 배려와 관심, 존경과 애정 등의 감정이 상호간에 진실되게 표현될 때에 더욱 의미 있고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배우자는 자신의 목적, 기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유영주 외, 2000). 의사소통기술 결핍모델에서는 배우자간의 갈등유발의 원인을 한 배우자나 두 배우자 모두의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으로 보았으며(송성자, 1974; 박종삼, 1983; 이규삼, 1999), 의사소통 갈등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갈등정도가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김재경, 1992).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건강한 부부관계 유지의 핵심적 요소이며, 부부의 대처능력 및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송성자, 1974; 김수연·김득성, 1993; 이선미·전귀연, 2001; 박영화·고재홍, 2005), 많은 연구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많이 하는 의사소통 형태를 사용하는 부부가 의사표시를 적게 하는 부부보다 부부간의 만족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확보된 의사소통 통로가 있으며 개방적이고 서로의 감정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정순, 1991; 임승락·권정혜, 1998; 이정은·이영호, 2000; 장문선·김영환, 2002; 이종선·권정혜, 2002).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두 가지 원칙은 인종, 국적, 사회계층 등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택한다. 동일인종끼리 결혼을 권장하는 이유는 동일민족 인종이어야 서로의 생활습관이 비슷하고 언어소통이 용이하여 애정표현도 자유롭기 때문이다(정현숙·유계숙, 2001). 그러므로 다른 문화권간의 적응에 있어 의사소통능력은 부부생활의 갈등 및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ah, 1993), 문화간, 국가간 결혼이라는 코시안가정주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부부의 의사소통능력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로 베트남과 태국 출신 주부들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고, 취업의사가 있으나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어도 이에 대한 정보획득과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한국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을 알 수 있다.

(2) 문화적응과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문화접촉(culture contact)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화접촉 상황에서의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 현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발생되어 왔고, 최근 들어 범 세계화된 상황에서 파견근무, 여행, 다민족국가의 형성, 다국적 기업 활동, 국제결혼 등과 같이 이민족(異民族), 이문화(異文化) 간 상호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적응은 매우 큰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념정의, 연구 접근법, 그 결과는 동 시대에서도 다양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채정민, 2003).

역사적으로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자인 레드필드(Redfield), 린톤(Linton)과 허스코비트(Herskovits, 1936)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문화적응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한 집단이 직접 접촉하고, 이 때문에 어느 한 문화나 두 집단 모두의 원래(original)문화 패턴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Berry, Poortinga, Segall and Dasen, 1992. 채정민 2003에서 재인용). 그러나 ‘문화적응’이라는 용어가 의미상으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발생하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에서 더 많은 변화를 유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Berry, 1990. 채정민 2003에서 재인용).

고든(Gordon, 1964)은 외국인의 현지 문화적응 과정을 문화적 적응(cultural assimilation)과 사회적 적응(social assimilation)으로 분류하고, 문화적 적응이란 소수민(minority) 개인의 행동과 신념체계가 다수집단(majority)의 그것과 비슷해지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적응이란 소수집단인 외국인이 다수집단인 현지인의 사회, 경제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렇게 볼 때, 코시안가정주부에게 있어서 문화적 적응은 이들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을 한국문화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적응은 다수민인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소수민인 코시안 가정주부들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현주 외, 1997). 즉, 코시안가정주부들은 모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살다가 결혼을 매개로 한국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사회로 들어와 새롭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이처럼 기존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고 한다(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따라서 문화적응이란 ‘이주자들의 문화적인 패턴에서의 변화로 소수민 개인의 행동과 신념체계가 새로운 문화인 다수집단의 그것과 비슷해지는 것이며, 문화의 형태, 언어, 관습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응’(Gordon, 1964)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응과 관련한 개념과 연구는 Berry(1976, 1980, 1991, 1997)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한편, 베리(Berry, 1980)는 문화적응을 ‘두 문화간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로 정의하고, 코시안가정주부와 같은 이주자들의 문화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Ataca and Berry, 2002)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함축된 정체성(identity)이라는 말은 약 50년전에 에릭슨

(Erikson)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일반에서는 각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개념적 내용도 확대되어 왔다(신승철·이동근·김만권·이호영, 1992).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말도 이러한 확대 개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Zak, 1973. 신승철 외 1992에서 재인용). 정체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중앙사회복지회, 1996)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체성 수준과 개인의 적응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들러(Adler, 1975)가 ‘모든 문화는 개인들에게 정체성, 어느 정도의 규정, 소속감, 뿌리내림 의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는 개인은 해당문화에서 제공되는 정체성을 잘 수용하여 내면화할 때 적응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코시안가정주부들도 주류사회인 한국사회의 문화를 잘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적응과 결혼만족에 도움이 될 것이다(채정민·김중남, 2004).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이 가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모국 및 이주국가인 한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또한 모국과 한국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즉, 이주자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 따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배워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문화적응 과정 중의 변화는 접촉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나, 실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되며 더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Berry, 1980).

베리(Berry, 1980, 1991, 1997)는 문화적응 모델을 통해 다음 <표 1> 과 같이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매우 용이하게 하였다. 주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난민이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만나서 자신 안에 자신의 문화와 함께 선택, 수용하는 정도를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 -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모국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사회인 한국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을 구분하는 첫째 조건은 개인이 가진 모국으로부터 상속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상대적 선호이고, 둘째 조건은 다른 문화인 한국사회의 집단들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접촉하고 참여하려는 상대적 선호이다.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한국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한국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한국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한국문화와도 접촉하지 못하면 ‘주변화’가 되는데, 이러한 적응을 보이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적 태도, 소외, 자아정체성 상실 등을 가지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적응이 잘된 상태는 모국문화와 이주국 문화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통합형’이다. 다시 말하자면, 베리는 다른 문화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국문화 정체성과 한국문화 정체성의 공존을 중요하게 보면서 개인의 적응과정에서 그 비중의 정도를 고찰하였다.

베리의 문화적응 모델은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지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응을 할 때 이 네 가지 전략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즉, 맥락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선택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경 외, 2004).

〈표 1〉 Berry의 문화적응 모형

		차원 1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차원 2		그렇다	아니다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그러면, 문화적응전략으로 선택된 문화적 정체성은 변화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문화적응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정체성의 재구성에 필요한 지지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집단 내와 집단간 관계의 맥락 내에서 발생하므로 변화가능하다(Horenczyk, 2000)고 본다. 그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두 가지 정체성의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모국 문화 정체성은 이주 초기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약화되었다가 적응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데 반해, 이주국 문화 정체성은 초기에는 높은 호감을 보이다가 부정적인 단계를 지나서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화한다(Atkinson, Morron and Sue, 1998. 금명자 외 2004에서 재인용).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시안가정주부의 문화적응 과정에는 모국문화 정체성과 한국문화 정체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이들은 이에 대하여 긴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베리(1980, 1991, 1997)의 문화적응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독고순, 1999; 윤인진, 2000; 윤여상, 2001; 이애란, 2003; 금명자 외, 2004), 이들의 북한문화 정체성과 남한문화 정체성은 남한사회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학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적응과정과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코시안가정주부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결혼만족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김선우·김태현, 2003) 결혼행복도, 결혼적응도, 결혼성공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다(권정혜·채규만, 1999).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이 있으나, 선행연구(송성자, 1974; 박종삼, 1983; Nah, 1993; 성지혜, 1996; 강유진, 1999; Ataca and Berry, 2002; 안현정, 2003; 표현영, 2004)에서 문화적 요인을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가정주부의 사회적 배경, 의사소통능력의 제한(송성자, 1974; 박종삼, 1983),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등(Ataca and Berry, 2002) 결혼의 성립초기부터 매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

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문화적응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Hovey and Mogana, 2000), 문화적 정체성의 비양립성, 가족과 같은 보호가치들로부터의 분리 등(Gil, Vega and Dimas, 1994)이 이들 주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미국제결혼가족의 이혼을 포함한 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접근이 다학제적 전문가 집단에 의해 시도되어 왔으나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되어 왔다는 것(박종삼, 1983)이 이를 반증한다.

코시안가정주부들의 대부분이 부부의 갈등 및 결혼만족도 저해 요인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한계성, 언어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언어적인 갈등, 개인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갈등,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유교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경우 남편이 낮은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자신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갈등을 느끼고, 의사소통능력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함으로써(김상임, 2004) 결국은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강유진, 1999) 조선족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습관과 언어적 장벽 등 문화적 차이로 나타났고, 이들의 한국인 남편 역시 가장 큰 불만사항은 말씨나 음식습씨 등 문화적 차이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수의 연구(광주여성발전센터, 200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한국여성개발원, 2003; 한국염, 2004; 전라남도, 2005)들이 이주여성들의 문화충격에 따른 부부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5)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한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의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22%), 경제문제(12%), 남편의 음주(11%) 순으로 나타나 이질적 문화에의 적응이 결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송성자, 1974; 박종삼, 1983; 성지혜, 1996; 이규삼, 1999; 안현정, 2003; 표현영, 2004)에서도 문화적응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시안가정주부의 문화적 정체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선행연구는 없으며, 이민자나 난민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주국가, 즉 주류사회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를 통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금명자 외(2004)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문화 적응과정의 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성 수준과 우울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남한생활이 아직 2년 안팎의 체류기간 동안 적응 정체성이 정서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타국생활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문화적응 관련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코시안가정주부에 있어서 모국문화 정체성과 한국문화 정체성이 이들의 결혼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의 대상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전형적인 농촌이고, 시·군 인구비례 코시안가정주부들이 가장 많은 예천군과 봉화군을 임의표집하였다.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경상북도(2005)의 코시안가정주부 수는 1,544명(중국 679, 베트남 324, 필리핀 221, 일본 205, 태국 53, 기타 62)이며, 예천군과 봉화군은 각각 101명(중국 26, 베트남 42, 필리핀 16, 일본 14, 태국 3)과 71명(중국 20, 베트남 10, 필리핀 9, 일본 23, 태국 9)이다. 조사는 태국어 설문지 작성의 한계상 태국여성(12명)을 제외한 예천군과 봉화군의 코시안가정주부 모두(160명)를 전수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응답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번역은 해당 언어에 조예가 깊으면서 국제결혼한 사람들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중국국적의 조선족), 일본어, 영어(필리핀인), 베트남어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조사대상 지역 군청 사회복지과의 동의를 얻은 후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자로 하여금 문항응답을 작성케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9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대상자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신분 노출을 꺼려 설문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160부를 배포하였으나 응답거부(21명), 가출(7명), 실제이혼(5명), 취업상 타지역 거주(9명), 친정방문 등 조사기간 중 비거주(7명) 등으로 인하여 111부(69%)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로서 부적합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84부(53%)만을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를 참조하여 연령, 국적, 학력, 모국직업, 년평균 소득, 종교, 자녀수, 결혼기간, 사용언어, 결혼이유 등을 포함하였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이주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아타

카와 베리(Ataca and Berry, 2002)의 언어적 능숙함 도구와 김현주 외(1997) 및 보건복지부(2005)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능력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배열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소통능력의 응답 가능한 점수분포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이다. 의사소통능력의 수준별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이를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4점에서 13점까지를 ‘하’, 14점에서 20점까지를 ‘상’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49로 나타났다.

(3)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척도는 안희선(Hue Sun Ahn, 1999)이 재미한인 대학생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재미한인 민족적 정체성 척도(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 : KAEIS)를 금명자 외(2004)가 변안하여 탈북청소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KAEIS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을 ‘모국’으로, ‘남한’은 ‘한국’으로 변경하였고, 금명자 외(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 모국문화 정체성과 한국문화 정체성의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즉, 원래의 38개 문항 중 선행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묶인 2문항과 요인부하량이 .3이하인 2문항 등 4문항을 제거한 총 34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요인 1은 모국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모국문화 정체성’ 18개 문항, 요인 2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한국문화 정체성’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배열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분포는 모국문화 정체성은 18점에서 90점까지이고, 한국문화 정체성은 16점에서 8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모국문화 및 한국문화 정체성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각각 .8470과 .8439로 나타났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는 본래 로치(Roach, 1975)가 개발한 총 75개 문항의 도구를 Bowden(1977)이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여 48개 문항으로 단축해 재구성한 척도이다. 그 후 로치, 프레이저와 보든(Roach, Frazier and Bowden, 1981)이 사용한 척도를 유영주(1986)가 변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의 48개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3이하인 7개 문항(6,7,8,23,25,29,34)을 제외한 총 4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분포는 41점에서 20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6개의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먼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가 실제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각 항목에서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주요인 부하치가 0.3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후 추출된 각 요인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 및 결혼만족도의 전체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대응표본 T-검증을 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결혼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 과 같다. 연령은 30-34세(21.4%)와 35-39세(21.4%)가 가장 많고, 24세 미만(20.2%)과 40세 이상(20.2%), 25-29세(16.7%)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일본이 31.0%(26명)로 가장 많고,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6.2%(22명), 필리핀이 16.7%(1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46.4%)이 가장 많고, 중졸이하(26.2%), 전문대졸(15.5%), 대졸이상(11.9%)순으로 고졸이상이 73.8%로 나타나 비교적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모국에서의 직업은 무직(42.9%)이 가장 많고, 공무원, 간호사, 교사, 은행원, 유치원교사 등 전문직(39.3%), 농업과 상업 등 자영업(9.5%), 서비스직(8.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국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한 코시안가정주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 년평균 소득은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17.9%)이 가장 많고,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5.5%),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13.1%), 1,000만원 미만(11.9%) 순으로 나타나, 약 30%가 1,5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불교(33.3%)가 가장 많고, 통일교(31.0%), 종교 없음(23.8%), 기독교 및 기타(6.0%)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불교와 통일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 통일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한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자녀수는 1명(26.2%)과 3명이상(26.2%)이 가장 많고, 2명(25.0%), 자녀 없음(22.6%) 순으로 평균 자녀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6년이상(50.0%)이 가장 많고, 2-4년 미만(30.0%), 4-6년 미만(14.0%), 1년 이하(6.0%) 순으로 나타나, 6년 이상과 6년 미만이 같은 분포를 보였다. 사용언어는 한

국어(60.7%)가 가장 많고, 한국어와 모국어의 병행사용(20.2%),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변 수			변 수			
구 분			구 분			
빈도(%)			빈도(%)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연령	24세미만	17(20.2)	종교	없음	20(23.8)
		25-29세	14(16.7)		크리스찬	5(6.0)
		30-34세	18(21.4)		불교	28(33.3)
		35-39세	18(21.4)		통일교	26(31.0)
		40세이상	17(20.2)		기타	5(6.0)
		계	84(100.0)		계	84(100.0)
	국적	중국	22(26.2)	자녀수	없음	19(22.6)
		일본	26(31.0)		1명	22(26.2)
		필리핀	14(16.7)		2명	21(25.0)
		베트남	22(26.2)		3명이상	22(26.2)
		계	84(100.0)		계	84(100.0)
	학력	중졸이하	22(26.2)	결혼 기간	1년 이하	5(6.0)
		고졸	39(46.4)		2-4년 미만	25(30.0)
		전문대졸	13(15.5)		4-6년 미만	12(14.0)
		대졸이상	10(11.9)		6년 이상	42(50.0)
		계	84(100.)		계	84(100.0)
	모국 직업	무직	36(42.9)	사용 언어	한국어	51(60.7)
		전문직(간호사,교사등)	33(39.3)		한국어+모국어	17(20.2)
		서비스직	7(8.3)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	16(19.0)
		자영업(농업 등)	8(9.5)		계	84(100.0)
		계	84(100.0)		결혼 이유	경제적 발전국가
	년평 균 소득	1000만원 미만	10(11.9)	본국 가족경제적지원		13(15.5)
		1000-1500만원 미만	15(17.9)	가족친척 권유		3(3.6)
		1500-2000만원 미만	11(13.1)	현재남편을 사랑		12(14.3)
		2000-3000만원 미만	13(15.5)	종교적 이유		27(32.1)
		3000만원 이상	9(10.7)	계		84(100.0)
		무응답	26(31.0)	의사소통 능력	하(4-13)	49(58.3)
		계	84(100.0)		상(14-20)	35(41.7)
		계	84(100.0)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위하여(34.5%)가 가장 많고,

종교적 이유(32.1%),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15.5%), 현재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14.3%),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3.6%)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동기가 이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주된 요인이나 종교적 이유도 이에 버금가는 주요 요인임은 주목할 만하다.

조사대상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상·하의 수준으로 구분 해 볼 때, “하”집단은 58.3%, “상”집단은 41.7%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인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 문화적 정체성 및 결혼만족도의 전체 수준

문화적 정체성 및 결혼만족도의 전체적 수준을 보면 <표 3>과 같다. 문화적 정체성에서 한국문화 정체성 요인은 평균 3.52/5점(± 0.598)로 모국문화 정체성 평균 3.27/5점(± 0.61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수준에 머물렀다. 결혼만족도도 평균 3.60/5점(± 0.630)으로 나타나 보통수준이었다.

<표 3> 문화적 정체성 및 결혼만족도의 전체적 수준

(N=84)

구분		M	SD	최소값	최대값	대응표본검정
문화적 정체성	모국문화 요인 (평균/5점)	58.85 (3.27)	11.003 (.611)	33.00 (1.83)	87.00 (4.83)	M= -.2477 SD= .8544
	한국문화 요인 (평균/5점)	56.24 (3.52)	9.574 (.598)	30.00 (1.88)	75.00 (4.69)	t값= -2.657 (p=.009)
결혼만족도 (평균/5점)		147.67 (3.60)	25.81 (.630)	50.00 (1.22)	201.00 (4.90)	

3)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의 결과는 <표4>와 같다. 먼저 모국문화 정체성은 연령, 국적, 모국에서의 직업, 종교, 자녀수, 결혼기간, 사용언어, 결혼이유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력과 연평균수입,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20대와 30대 초반의 저연령층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의 코시안가정주부 집단에서, 모국직업이 서비스직인 경우, 종교가 불교와 기타인 경우, 자녀수가 1명이거나 없는 경우, 결혼기간이 4년 미만에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한국어+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모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이유로 결혼한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국문화 정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아 자녀수가 없거나 1명인 젊은 층에서, 언어형태가 전혀 달라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국가경제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 다소 보수적인 종교를 지닌 국가에서 모국문화 정체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한국문화 정체성은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문화 정체성은 모국문화 정체성과는 달리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상당히 주요한 영향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한국문화 정체성이 더 높았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N=84)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모국		한국			모국		한국		
		평균	D ¹⁾	평균	D ¹⁾		평균	D ¹⁾	평균	D ¹⁾	
연령	24세미만	3.53	b	3.48	ab	종교	없음	3.27	ab	2.380	a
	25-29세	3.46	b	3.52	ab		크리스찬	3.11	ab	3.49	a
	30-34세	3.41	b	3.72	b		불교	3.49	bc	3.66	a
	35-39세	3.11	ab	3.26	a		통일교	2.93	a	3.50	a
	40세이상	2.87	a	3.61	ab		기타	3.92	c	3.49	a
	F값	3.796**		1.492			F값	5.363***		3.66	
국적	중국	3.10	a	3.62	a	자녀수	없음	3.44	b	3.52	a
	일본	2.92	a	3.49	a		1명	3.51	b	3.49	a
	필리핀	3.70	b	3.37	a		2명	3.23	ab	3.52	a
	베트남	3.56	b	3.52	a		3명이상	2.89	a	3.53	a
	F값	9.408***		.546			F값	5.118**		.013	
학력	중졸이하	3.20	a	3.57	a	결혼기간	1년이하	3.57	b	3.20	a
	고졸	3.18	a	3.55	a		2-4년미만	3.55	b	3.61	a
	전문대졸	3.32	ab	3.40	a		4-6년미만	3.33	ab	3.44	a
	대졸이상	3.67	b	3.39	a		6년이상	3.04	a	3.52	a
	F값	1.907		.407			F값	4.624**		.743	
모국직업	무직	3.28	a	3.56	a	사용언어	한국어	3.07	a	3.57	a
	전문직 (간호사, 교사등)	3.10	a	3.57	a		한국어+모국어	3.73	b	3.48	a
	서비스직	4.02	b	3.49	a		대화를 거의하지 않음	3.42	b	3.38	a
	자영업(농업)	3.18	a	3.52	a		F값	9.783***		.673	
	F값	5.288**		.164			결혼이유	경제적 발전국가	3.35	ab	3.65
년평균소득	1000만원미만	3.33	a	3.09	a	본국 가족 경제적지원		3.70	b	3.44	a
	1000-1500만원미만	3.00	a	3.59	a	가족친척 권유		3.50	ab	3.79	a
	1500-2000만원미만	3.21	a	3.82	b	현재남편을 사랑		3.11	a	3.36	a
	2000-3000만원미만	3.39	a	3.47	a	종교적 이유		2.97	a	3.43	a
	3000만원이상	3.25	a	3.44	a	F값		4.132**		.862	
F값	1.234		2.380				한국		t값		
의사소통능력	하 (4-13)	3.32		.937		의사소통능력	하 (4-13)	3.38		-2.649**	
	상 (14-20)	3.19					상 (14-20)	3.71			

* p<.05 ** p<.01 *** p<.001

1) D: Duncan test

4) 결혼만족도에 대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3>인 결혼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국적, 학력, 모국직업, 연평균소득, 종교, 자녀수, 결혼기간, 사용언어, 결혼이유, 의사소통능력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학력¹⁾, 연평균소득, 자녀수, 결혼기간, 의사소통능력은 연속변수이며, 비연속 변수인 국적(중국 기준), 모국직업(서비스직 기준), 종교(통일교 기준), 사용언어(한국어 사용 기준), 결혼이유(모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준)는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해결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값을 구해 본 결과 2.142로 나타나 각 관측치의 분산들간의 독립성 가정에 큰 문제는 없었다. 또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변수입력(stepwise)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공선성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9이상이었으며, VIF(Variance)는 1.1수준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4단계 회귀모형이 나타났으며,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는 한국문화 정체성($\beta=.462, p<.001$)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 년평균 소득($\beta=.319, p<.01$), 모국문화 정체성($\beta=-.291, p<.01$), 학력($\beta=-.226,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문화 정체성과 년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모국문화 정체성과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한국문화 정체성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25.0%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한국문화 정체성이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문화 정체성은 의사소통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문화 정체성을 높이면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결혼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므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코시안가정주부들의 특성에 맞게 조기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문화 정체성과 년평균 소득 두 가지를 입력방식으로 투입한 결과, 이들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모형 1에 비해 10.6%가 증가된 35.6%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이것은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은 한국문화 정체성 다음으로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므로,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각 개인의 능력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문화 정체성과 년평균소득 및 모국문화 정체성을 입력방식으로 투입한 결과에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모형 2에 비해 8.6%가 증가된 44.2%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한국문화 정체성과 년평균 소득과는 반대로 모국문화 정체성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1) 초등학교졸=6, 중등학교졸=9, 고등학교졸 =12, 전문대졸=14, 대학교=16, 대학원이상=18로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났다. 이는 모국문화 정체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모국문화 정체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및 문화체험 등의 복지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학력을 추가 투입한 결과에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모형 3에 비해 4.8%가 증가된 49.0%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학력은 모국문화 정체성과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국문화 정체성과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력이 높은 코시안가정주부들은 자신들이 배운 만큼 자존감이 높지만 결혼생활에서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거나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코시안가정주부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부 및 가족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표 5〉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N=84)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R	R ²	adj.R ²	F	
	B	표준오차	β							
1	(상수)	66.408	19.560		3.395	.001	.500	.250	.236	17.962***
	한국문화정체성	1.460	.345	.500***	4.238	.000				
2	(상수)	56.957	18.570		3.067	.003	.596	.356	.331	14.636***
	한국문화정체성	1.368	.324	.468***	4.223	.000				
	년평균소득	8.858E-03	.003	.327**	2.956	.005				
3	(상수)	101.506	23.453		4.328	.000	.665	.442	.410	13.751***
	한국문화정체성	1.512	.308	.517***	4.903	.000				
	년평균소득	9.348E-03	.003	.346**	3.315	.002				
	모국문화정체성	-.924	.325	-.299**	-2.841	.006				
4	(상수)	142.920	29.618		4.825	.000	.700	.490	.450	12.229***
	한국문화정체성	1.350	.307	.462***	4.393	.000				
	년평균소득	8.620E-03	.003	.319**	3.140	.003				
	모국문화정체성	-.899	.314	-.291**	-2.860	.006				
	학력	-2.737	1.261	-.226*	-2.171	.035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1) 조사결과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시안가정주부들은 주로 30대 여성으로서 본국에서 무직, 일본출신, 통일교 배경의 여성이 가장 많고, 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였으며, 결혼기간은 6년 이상과 6년 미만이 각각 절반이었고, 현재 가정의 연평균 소득은 1,500만원 미만이 약 30%를 차지하며, 평균자녀수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 정체성에서 한국문화 정체성은 평균 3.52/5점(± 0.598)로 모국문화 정체성 평균 3.27/5점(± 0.61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수준이고, 결혼만족도도 평균 3.60/5점(± 0.630)로 나타났으나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국문화 정체성은 연령, 국적, 모국의 직업, 종교, 자녀수, 결혼기간, 사용언어, 결혼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이 있으나, 한국문화 정체성은 이들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넷째, 일상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60.7%)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한국문화 정체성이 더 높았다.

다섯째,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문화 정체성이었으며, 다음은 연평균 소득, 모국문화 정체성, 학력 순이었다. 한국문화 정체성과 연평균 소득은 높을수록, 모국문화 정체성과 학력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조사결과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시안가정의 자녀수는 평균 2명으로 이는 2005년 12월 현재 한국의 가임여성 평균 출산 자녀수인 1.19명(통계청, 2005)보다 높아 이러한 국제결혼이 우리나라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코시안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5년도 수급자 책정수준(4인가구 최저생계비 1,055,090원/월)과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자의 약 30%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보건복지부, 2005)이다. 본 조사결과가 보건복지부(2005)의 전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빈곤실태에서 조사대상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가구라는 조사결과와 수치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는 전국규모로 도시근로자 가구를

포함하였으나 본 조사는 농촌지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집단속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국 규모이든 농촌지역이든 많은 수의 코시안가정주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이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모국보다 나은 한국에서 살면서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한 사람이 많다는 점은 선행연구(송성자, 1974; Hofsted, 1996; Imamura, 1998; 안현정, 2003; 표현영, 2004; 강인순,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코시안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의 결혼이유와 함께 본 조사결과에서 년평균 소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된다.

넷째, 코시안가정주부들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12점(5점척도)으로 김현주 외(1997)의 연구 결과(2.59점/5점)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에 한정되었으나 김현주 외(1997)의 연구에는 화이트 칼라(3.03점), 도시근로자(2.49점), 주한 미군(2.33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국적의 조선족(26.2%)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았고, 한국문화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인 점과 함께 고려하면 의사소통능력도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능력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송성자, 1974; 박종삼, 1983; McGuire and McDermott, 1987; Ting-Toomey and Korzenny, 1991; Nah, 1993; 김현주 외, 1997; Hovey and Mogana, 2000; Ataca and Berry, 2002; 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력과 년평균 소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탈북자의 경우 학력, 수입, 체류기간이 문화적응 유형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독고순, 1999; 이에란, 2003; 금명자 외, 2004)와 유사한 결과로서 코시안가정주부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3) 사회복지실천적 함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날로 증가하는 코시안가정주부들의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향상시켜 문화적응을 돕고, 결혼만족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시안가정주부의 한국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경제수준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30%)에게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문화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즉, 다수의 코시안가정주부들은 기본적인 주거 및 식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심각하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복지는 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보건복지부, 2005), 이들에게

생계보장과 의료보장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녀에 대한 교육보장 등도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코시안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융통성 있는 개입과 탄력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가족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면제 내지 할인, 자녀교육 특례조항의 적용 등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한국문화 정체성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코시안가정주부들 중의 20.2%는 모국어와 병행하면서 의사소통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주부도 19%나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조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안현정, 2003).

코시안가정주부들에 대한 한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담당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장)와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외국인 주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무 및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일회성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글교육 전문가를 투입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의 의사소통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근성의 문제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일수록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으므로(양철호 외, 2003), 우리말과 글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문화체험기회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증대하고, 또래집단과의 만남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 또래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의 자국민을 만날 수 있고, 자국민과의 연결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신적 위안을 얻고 심리적 좌절을 피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Kim, 1980; 김현주 외, 1997; 양철호 외, 2003) 때문이다.

셋째, 한국문화 정체성을 높이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코시안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 이들이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에 직접 참가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또한 남편들을 교육에 동참시켜 관심과 지지를 보임으로써 이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에 대해 코시안가정주부들의 모국문화, 국제결혼에 따라 이주해 온 여성들의 적응상의 어려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한국문화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 정체성을 높이는 데만 집중할 경우 모국문화를 등한시 할 수 있으므로 모국과 한국문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문화 정체성을 높여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LaFromboise, Coleman and Gerton, 1993)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간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정진경·양계민, 2005). 한국사회의 경우 뿌리 깊은 전통적 유교문화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해 미국 등 서구처럼 다민족으로 구성된 개방적 사회보다 외국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코시안가정주부들의 다양한 모국문화에

대한 문화간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화간 교육에는 공교육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여기에는 초등학교부터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이들 가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질문화의 수용,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은 각종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섯째, 코시안가정주부의 적응초기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 동남아의 베트남, 필리핀, 태국 출신 코시안가정주부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성전문 상담프로그램인 1366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공기관간의 연계·협력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갓 시집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먼저 한국으로 시집와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코시안가정주부들을 일정기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이웃주민들을 조직화한 지지집단 또는 멘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정진경 외, 2005)하여 이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다. 코시안가정주부들 가운데는 모국에서 학력이 높거나 전문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부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을 선별하여 일본의 야마가타(山形) JVC(Japanese Volunteer Center)에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에게 통역인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통역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적인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활동가를 양성(보건복지부, 2005)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입체적인 교육과 홍보가 있을 때 코시안가정주부들은 이질문화인 한국문화를 보다 빨리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한국문화 정체성을 높이고 결국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국적을 보유한 코시안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일부 농촌지역에 한정시켜 조사결과를 전체 코시안가정주부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화적 정체성 및 결혼만족도 척도는 서구문화권에서 개발된 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나, 한국적 문화와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특수성과 특수한 목적에 적합한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에서 코시안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셋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동기, 남편에 대한 사랑 등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 관련 변수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강인순.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상북도.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 광주여성발전센터. 2002. 『광주·전남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 권정혜·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 학회지』 18(1): 123-139.
- 금명자·권혜수·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6(2): 295-308.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움』. 17-48.
- 김선우·김태현. 2003. “남녀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41-155.
- 김수연·김득성. 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0-39.
- 김재경. 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국내거류 외국인의 한국사회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0: 105-139.
- 독고순. 1999.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동아일보. 『코시안을 아시나요』. 2002. 7. 15.
- 매일신문. 『이슈 & 기획. 농촌의 코시안, 그들도 한국인이다』. 2005. 2. 23.
- 박영화·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1): 65-83.
- 박종삼. 1983. “한·미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 1-15.
- 보건복지부. 2005.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 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철·이동근·김만권·이호영. 1992. “중국 길림성 조선족의 민족 정체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1(2): 384-414.
- 안현정. 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여상. 2001.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인진. 2000.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방법 연구”. 『2000년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 용역보고서』.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 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움』.
- 이규삼. 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 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선미·전귀연. 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이애란. 2003.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점숙. 1997. “문화와 언어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점”. 『가톨릭상지대학 논문집』 27: 119-139.
- 이정순.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8(3): 531-548.
- 이종선·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1(2): 313-330.
- 임승락·권정혜. 1998. “우울증상이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2): 17-3.
- 장문선·김영환. 2002.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21(2): 331-347.
- 전라남도.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정진경·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24(1): 185-215.
- 정현숙·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선일보. 『코시안』. 2003. 5. 4.
- 중앙사회복지회 역. 1996. 『사회사업사전』. Lobert L, Barker. 1987. Social Work Dictionary. 서울: 이론과 실천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김중남.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대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1): 41-63.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 표현영. 2004.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5. www. nso. go. kr.
- 한국여성개발원. 2003. 『외국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보고서』.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 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 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움』.
- Ataca, B., and J. W. Berry.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Halsted.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pp. 9-25. in A. M. Padilla(Eds.),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1. *Managing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for problem prevention: In Mental Health Service for Refugee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MH.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Kim, U. and P. Boski. 198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of Immigrants." pp. 62-89. in Kim, Young Y, and W. B. Gudykunst(Eds.).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Newbury Park. CA: Sage.
- Gil, A., W.A. Vega, and J. Dimas. 1994.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312-329.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96. "Gender stereotypes and partner preferences of Asia women in masculine and feminine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5): 533-546.
- Horenczyk, G. 2000. "Conflicted identities: Acculturation attitudes and the immigrants construction of their social worlds." pp. 13-30. in Olstain, E. and G. Horenczyk(Eds.). *Language, identity, and immigration*. Jerusalem: Magnes.
- Hovey, J.D., and C. G. Magana.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83-102.
- Imamura, E. A. 1998. "The loss that has no name: Social womanhood of foreign wives." *Gender and Society* 12(2): 291-307.
- Kim, J. K. 1980. "Explaining Acculturation in a Communication Framework: An Empirical Test." *Communication Monograph* 57: 10-17.
- LaFromboise, T., H. L. K. Coleman, and J. Gerton.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 McGuire, M., and S. McDermott. 1987. "Communication in Assimilation: Deviance, and Alienation States." pp. 90-105. in Kim, Young, Y. and W. B. Gudykunst(Eds.).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 Newbury Park. CA: Sage
- Menjivar, C., and O. Salcido. 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and Society* 16(6): 898-920.
- Nah, K. H. 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289-296.
- Oberg, K. 1960.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e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Samovar, L. A., and E. P. Richard. 199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6th Eds.). Belmont. CA: Wadsworth.

Ting-Toomey, S., and F. Korzenny. 1991. *Cross-Cultur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http://www.pearlsbuck.or.kr/intro/intro__1.asp(필벽재단)

<http://www.wmigrant.org/bbs/zboard.php?id=news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in Rural Areas

Kwon, Bok-So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Cha, Bo-Hyun
(Yeungjin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ability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living in rural are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Kosian housewives' motivati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is to seek economic advancement, but 30% of the respondents are below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Second, the mean score of Korean cultural identity(KCid) fell into the medium level of the scale, and it was higher than that of original cultural identity(OCid) Third, OCi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age, nationality, occupation in their country, religion, number of children, period of marriage, and motivation for marriage. Fourth, more than half of them fell into the low level communication ability group. The high level communication ability group marked higher scores of KCid than the low level group. Fifth, the high level KCid group marked higher scores in marriage satisfaction than the low group. However,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groups were found in OCid. Fifth, KCid is found to have the most strong impact on marriage satisfaction. The higher the score of KCid and of yearly mean income, the scores of marriage satisfaction were higher. And the lower the score of OCid and of education level, the scores of marriage satisfaction were lower.

Key words : Kosian housewife, communication ability, cultural identity, marital satisfaction

[접수일 2006. 3. 13. 게재확정일 2006. 5. 9]